

C와 E를 담다... '벤츠 CLE 쿠페' 세계 최초 공개

C클래스·E클래스 컨셉·기술 계승 독자적인 2-도어 드림카 전자 아키텍처 탑재...전 라인업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11월 유럽 출시...더 뉴 CLE 카브리올레 내년 출시 예정

메르세데스-벤츠가 최근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쿠페'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쿠페는 C-클래스와 E-클래스의 컨셉트와 기술 혁신이 조화롭게 융합된 모델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드림카의 전통을 잇는 우아한 디자인과 주행 성능,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특별한 편의사양을 모두 갖춘 2-도어 모델이다.

더 뉴 CLE 쿠페는 긴 휠베이스, 날렵하게 이어진 A필러, 짧은 프론트 오버행, 큰 휠 등이 특징으로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인 철학인 '감각적 순수미'(Sensual Purity)를 구현했다. 지면에 가깝도록 낮게 설계된 전면부는 상어 코 형태의 '샤크 노즈' 형상을 자아낸다. 독특한 디자인의 평면 LED 헤드라이트와 새롭게 디자인된 입체적인 라디에이터 그릴과 함께 역동적이면서 우아한 외관을 보여준다.

더 뉴 CLE 쿠페는 보다 넉넉한 실내공간과 함께 새로운 시트 디자인을 적용하는 한편,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더 뉴 CLE는 전장 4850mm, 전폭 1860mm, 전고 1428mm로 중형 세그먼트에서 가장 큰 2-도어 쿠페 모델이다. 특히 C-클래스 쿠페보다 25mm 더 길어진 휠베이스로 훨씬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갖췄

며, E-클래스 쿠페보다도 전장 길이가 15mm 더 길다. 트렁크 용량은 C-클래스 쿠페 대비 60ℓ 더 넓어진 420ℓ로 골프백 3개를 충분히 적재할 수 있다.

더 뉴 CLE에는 해당 모델만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헤드레스트 일체형 아방가르드 스포츠 시트 디자인이 적용됐다. 앞좌석의 경우 열선과 전동식 4방향 요추 지지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또 신형 E-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최신 전자 아키텍처와 보다 지능적이고 높은 학습능력을 보유한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다. 센트럴 디스플레이에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게임, 오피스 어플리케이션 및 브라우저 등과 같은 서드 파티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운전자의 성향을 파악해 자동으로 운전자 맞춤형 기능을 추천해주는 '루틴'(routine) 기능도 제공한다.

이밖에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1.9인치의 세로형 중앙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조형미가 돋보이는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클래식', '스포츠', '엠비언트' 등 세 가지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제공하며, 중앙 디스플레이에는 신형 E-클래스에 도입된 새로운 메인 아이콘이 적용돼 더욱 직관적으로 기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더 뉴 CLE 쿠페는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메르세데스-벤츠가 C-클래스와 E-클래스를 융합해 만든 2-도어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쿠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모델로, 직렬 4기통(M254) 혹은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M256), 4기통 디젤 엔진(OM654)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ISG, integrated starter-generator)가 탑재돼 가속 시 추가적인 힘을 제공하며, 글라이딩, 부스터, 회생제동 등을 통해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매우 빠르고 부드럽게 엔진에 시동을

걸 수 있으며, 공회전 시에는 ISG와 엔진의 지능적 상호 작용을 통해 고도로 부드럽게 작동한다. 더 뉴 CLE 쿠페의 전 모델에는 ISG에 맞춰 개발된 9단 변속기가 탑재돼 엔진과 변속기의 조화로 최적의 퍼포먼스를 제공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전 세대 모델 대비 세시가 15mm 낮아졌으며, 다이내믹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을 선택 사양으로 제공한다. 다이내믹 바디 컨트롤에는 앞뒤 차축의

댐핑을 조절할 수 있는 서스펜션과 리어 액슬 스티어링이 포함된다. 액티브 새시는 엔진, 변속기 및 각 휠의 조향 특성과 함께 댐핑 특성을 개별적으로 제어해 주행 상황, 속도 및 노면 상태에 맞게 조절된다.

더 뉴 CLE 쿠페는 올해 11월 유럽에서 먼저 출시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더 뉴 CLE 카브리올레가 출시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확 바뀐 기아 '더 뉴 모닝'...사양은 동급 최강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편의 사양 트렌디 1315만~시그니처 1655만원

기아는 모닝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모닝'〈사진〉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닝은 신차급으로 변경한 외장 디자인과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편의 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모닝에 동급 최초로 LED 헤드램프와 센터 포지셔닝 램프를 적용했다. 특히 LED 센터 포지셔닝 램프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구현한 좌·우 LED DRL(주간주행등)과 가로로 이어지며 와이드한 느낌을 주고, 수직으로 배치된 헤드램프와 어우러져 세련되고 강인한 '시티 룩'(city look)을 연출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기아는 모닝을 신규 색상 '어드벤처러스 그린'과 '시그널 레드'를 더한 7종의 외장 색상과 '브라운'과 '다크 그린'을 추가한 총 3종의 내장 색상으로 운영한다.

모닝은 차별화된 디자인에 걸맞은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 사양을 갖췄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 및 재출발 기능 미지원)과 전방 충돌방지 보조, 하이빔 보조 등을 새롭게 적용했다.

이밖에 기아는 모닝에 애플 카플레이-안드로이드 오토 등 폰 프로젝션이 가능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 모니터, 아웃사이드 미러, 1열 C



타입 USB 충전 단자를 기본 적용했다. 원격 시동 가능 지원 버튼용 스마트키 시스템, 2열 C타입 USB 충전 단자를 추가해 상품성을 높였다.

기아는 모닝 2인승 밴의 상품성 개선 모델도 함께 선보인다. 6 에어백 시스템을 기본화해 안전성을 높였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 모니터, 1열 충전용 C타입 USB 단자를 기본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모닝은 가솔린 1.0 엔진과 4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해 14인치 휠 기준 동급 최고 수준인 15.1km/ℓ

의 복합연비를 갖췄다.

모닝의 가격은 ▲트렌디 1315만원 ▲프레스티지 1485만원 ▲시그니처 1655만원이다. 밴 모델은 ▲트렌디 1290만원 ▲프레스티지 1360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 대표 경차 모닝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편의 사양을 갖춰 돌아왔다"며 "모닝은 세련된 시티 룩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매력적인 도심 이동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그랜저, 상반기 내수 1위...하이브리드 대세

6만2970대 중 하이브리드 3만3056대...내연기관 앞질러

올 상반기 국내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40%대 증가하는 등 자동차 구매자들의 하이브리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상반기 내수 판매 1위 차종인 현대자동차 그랜저도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내연기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대차가 따르면 올 1~6월 그랜저(사진) 내수 판매량(6만2970대) 중 하이브리드는 3만3056대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2.5%를 차지해 내연기관 모델(2만9914대)을 앞섰다. 반기 기준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내연기관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연기관 판매량에는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많은 액화석유가스(LPG) 모델이 5292대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량이 주를 이루는 가솔린 모델(2만4622대)로만 비교하면 하이브리드와 격차는 8000대 이상으로 더 커진다.

10년 전인 2013년 처음 출시된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완전변경 모델 출시 때마다 신차 효과에 힘입어 눈에 띄게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6세대(IG) 출시 직후인 2018년 전체 판매량 중 하이브리드 비중은 21.7%로 커졌고, 지난해 11월 7세대 신형(GN7) 출시 이후인 올 상반기에는 50% 선을 돌파했다.

애초 국내 승용 시장에서 손꼽히는 간판 차종인 데다, 하이브리드 선호 현상까지 반영돼 그랜저의 올 상반기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5만2830대) 대비 19.2% 늘며 전 차종 판매 1위 유

지에 기여하고 있다.

그랜저와 동급 세단이자 같은 동력계(파워트레인)를 쓰는 기아 K8도 상반기 전체 판매량 2만5155대 중 하이브리드(1만5999대)가 LPG를 포함한 내연기관 모델(9156대)을 7000대 가까이 웃돌았다.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63.6%)은 그랜저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국도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를 활용하는 카이즈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된 하이브리드 신차는 15만1108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9% 증가하며 전체의 16.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신차 등록은 13.7% 늘었고, 내연기관 중에는 휘발유가 13.6% 증가했으나 경유(-3.8%)와 LPG(-11.2%)는 모두 전년 대비 등록량이 감소했다.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는 비중 자체는 아직 크지 않으나 성장세는 가파르다.

업계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와 충전 시간 등을 이유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하이브리드차가 대안으로 인식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아, 항저우 아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공식 후원

기아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대한민국 e스포츠 국가대표 후원을 위한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민국 e스포츠 국가대표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기아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글로벌 스포츠 대회 최초로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하고, 꾸준히 지속해온 e스포츠 활성화와 전 세계 e스포츠 팬들과 소통 확대를 위해 후원을 진행한다.

우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선 기간 중에 국가대표와 함께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공개하고, 국내 e스포츠 팬을 대상으로 하는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선보인다.

또 아시안게임 결선 진출을 위한 예선전 지역 대회(Road to Asian Games), 국가대표 출정식과 평가전 등의 사전행사,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비롯해 올해 예정되어 있는 e스포츠 국가대표의 일정을 함께한다.

특히 기아는 국가대표 공식 유니폼 전면(사진)



에 기아 로고를 노출해 기아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 세계 팬들에게 알리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아는 국가대표와 연계한 다양한 방식의 스포츠 마케팅을 발굴해 진행할 예정이다.

기아는 2019년부터 '유럽·중동·아프리카 챔피언십(LEC, 구 리그 오브 레전드 유럽 리그)' 지역리그 후원과 2021년부터 '디플러스 기아(Dplus

KIA, 구 담원 기아)' 후원 파트너십을 지속하며 국내외 e스포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마케팅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 산업을 다각적으로 후원하며, e스포츠 팀과 지역 리그, 협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정성 있는 마케팅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렉서스, 수입차 판매 3위로 올라서

지난달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일본차 브랜드인 렉서스 수입차 판매 3위에 올랐다. 수입차 판매량은 일부 브랜드의 신차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만6756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2695대)보다 17.9% 증가한 것으로, 전월(2만1339대) 대비 25.4%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판매 대수는 13만689대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측은 지난달 원활한 물량 수급과 일부 브랜드의 신차 효과로 수입차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BMW가 8100대, 메르세데스-벤츠 8003대로 나타났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토요타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가 1655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 순위 3위에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볼보(1372대), 아우디(1347대) 등 순이다.

최고 판매 모델은 BMW 5시리즈(2693대)로, 이어 벤츠 E-클래스(2091대), 벤츠 S-클래스(1619대), 렉서스 ES(825대), 벤츠 GLE(772대) 등이었다.

연료별로는 가솔린(1만1966대), 하이브리드(8285대), 전기(2694대) 디젤(2306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1505대) 순이었다.

국가별 브랜드 판매량은 유럽 2만2644대(84.6%), 일본 2732대(10.2%), 미국 1380대(5.2%) 순이다.

구매 유형별로는 개인 구매가 59.8%, 법인 구매가 40.2%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